

보도 일시	2023. 7. 13.(목) 13:00 2023. 7. 14.(금) 조간		배포 일시	2023. 7.13.(목) 13:00	
담당 부서	고 객 사 업 본 부	책임자	부 장	나세준 (02-519-2121)	
	훈 련 취 업 부	담당자	과 장	방정수 (02-519-2122)	

건설근로자공제회, 최고경영자의 찾아가는 ‘현장 생생 소통 간담회’ 성료

· 최고경영자가 청년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해 현장 목소리 청취에 앞장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13일, 타일, 방수, 조적, 미장 건설 직종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미래 청년 건설기능인(훈련생)’ 등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의 찾아가는 ‘생생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에 위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한국능력개발원, 이사장 김윤세)을 최고경영자가 직접 찾아가 훈련생들의 실질적인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훈련생 격려, 정책 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기획되었다.

공제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업훈련 유형인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 사업¹⁾을 위탁받아 2013년부터 연간 사업 단위로 운영하고 있다. 2023년은 지난 2월부터 전국 39개 훈련기관을 선정 하여 총 71개 훈련과정을 운영 중이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 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OECD 분류 기준을 준용하여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그중 직업훈련 유형은 구직자의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재직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담회에서 훈련기관은 2020년 이후 운영비 차원으로 지급받는 훈련지원 단가(5,330원/시간)가 인상되지 않아, NCS 기준(6,820원/시간)²⁾에 맞춰 훈련

지원단가 현실화를 요청했다. 훈련생은 훈련수로 후, 지급받는 훈련장려금 인상, 취업연계 강화 등을 건의사항으로 제출했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청년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해 추진한 생생 소통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하면서, “향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훈련생과 훈련기관이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공제회는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건설 뉴 마이스터**’ **양성훈련**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 22일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전문 건설기능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목포공업고등학교, 구림공업고등학교 등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10개교, 전문건설회사 20개소와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보충자료】 2023년 「건설 뉴 마이스터」 양성훈련이란?

- (훈련대상) 특성화고등학교(건설 관련 학과) 3학년 재학생 [총 10개 학교]
- (훈련생 선발) 학교에서 사전 인터뷰 등의 절차를 통해 훈련생 자체 선발
- (훈련직종) 타일, 조적, 형틀목공, 건축목공, 문화재시공, 측량
- (훈련교사) 훈련 직종 분야의 기능장, 건설현장 경험 7년 이상인 자 등
- (훈련내용) 교내에서 훈련직종에 대한 ‘기초교육(60시간)+실습응용훈련(360~420시간)’ 실시
- (OJT 참여 건설회사) 훈련 수료생을 채용 후, 약 3개월간 직무교육 실시 [총 20개 기업, 84명 채용 예정]

- [붙임]

1. 활동사진 1부

2. 2023년 전국 훈련기관 현황 및 연락처 1부

1) 고용노동부에서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타일, 방수, 조적, 미장, 도장, 용접 등 15개 공급부족 건설 직종에 대한 기능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직업훈련을 위탁(국비 예산, 운영)함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534호, 2022.12.19.)



건설근로자경제회, 최고경영자의 찾아가는 '현장 생생 소통 간담회'



건설근로자경제회, 최고경영자의 찾아가는 '현장 생생 소통 간담회'

